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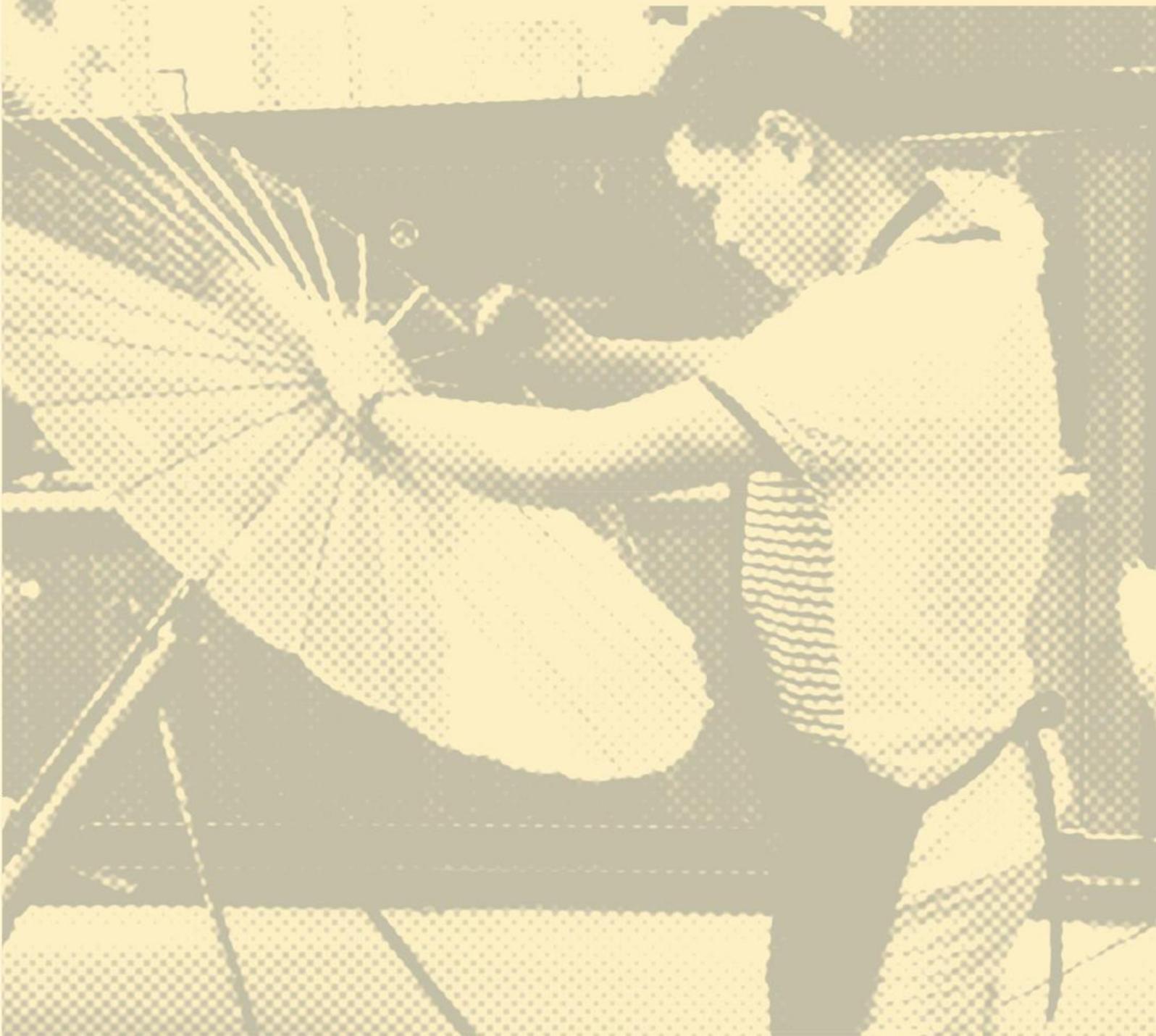
공예 협력: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의 분쟁  
해결 및 공동체 참여

이푸(Yi Fu)

김상균(Sangkyun Kim)

루오한 마오(Ruohan Mao)



# 공예 협력: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의 분쟁 해결 및 공동체 참여

## ●이푸(Yi Fu) 박사

절강대학교(시시 캠퍼스), 중국  
문화유산박물관학과  
문화유산 강사

## ●김상균 부교수

에디스코완대학교, 준달럽, 호주  
경영대학원/로스쿨  
관광학과 부교수

## ●루오한 마오

절강대학교(시시 캠퍼스), 중국  
문화유산박물관학과  
문화유산 박사과정

## 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공예술에 관여하는 박물관의 입장에서 장인과 박물관 전문인력 간의 참여와 협력 및 갈등의 복잡한 성격을 조사하는 데 있다. 중국 항저우의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ACMC)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 방법(직접 관찰, 반구조화 인터뷰 및 문서화)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인의 초기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은 지속 가능한 수입, 정신적 만족, 사회적 인식과 인정을 받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박물관 전문인력은 보다 시장 지향적이었으며, 관람객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했다. 참여 및 협력의 관점에서 이 같은 양측의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결국 장인 및 박물관 전문인력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 박물관의 무형유산 활용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 방식을 재검토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상과 타협 과정을 통한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다.

## 표제어

공예술, 장인, 박물관, 공동체 참여, 항저우, APMC, 중국

## 서문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ICHC)의 채택은 과거 주로 유형 또는 물질 문화유산에 중점을 두었던 국제 문화유산 관행의 전환점이 되었다. 학자들과 무형유산 행위자들은 무형유산의 인간 중심적 또는 공동체 중심적인 고유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구별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했다(Kirshenblatt-Gimblett, 2004년 / Kurin, 2007년). 그러나 무형유산의 맥락에서 사람 또는 공동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며,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Alivizatou, 2012년 / Smith, 2006년 / Smith와 Akagawa, 2009년).

무형유산의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공인된 유산 담론(AHD)은 무형유산의 구축 및 해석에서 전문가 공동체(Smith 2012년, p25)가 담당하는 지배적인 역할을 강조한다(Smith, 2006년과 2012년). 보다 최근에 들어서는 유산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이 원천 공동체(Peers와 Brown, 2007년, p519)의 참여를 연구했고, 무형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Smith, 2006년과 2012년 / Chirkure 외 공저, 2010년 / Harrison, 2010년). 원천 공동체와 전문가 공동체는 종종 다른 '문화 매개자'(Arantes, 2013년, p39) 및 비 정부조직, 문화센터, 대학, 기업 등을 비롯한 기타 조직이나 기관과 함께 유산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대 당사자로 강조되고 있다(Smith, 2006년, 2009년 및 2012년 / Watson, 2007년 / Blake, 2009년 / Munjeri, 2009년 / Harrison, 2010년).

기존의 객체 중심적 박물관이 무형유산을 보존, 제시, 해석 및 증진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추세와 함께, 무형유산에 관여하는 박물관 자체의 환경에서 박물관 전문가 공동체와 원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Bouchenaki, 2004년 / Kirshenblatt-Gimblett, 1998년과 2004년 / Kurin, 2004년과 2007년 / Fu, Kim 및 Zhou, 2014년). 이 분야와 관련해 작성된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서구 사회의 박물관 전문가(특히 유럽 중심적인 전문가) 및 비서구 사회의 원천 공동체(예: 캐나다 원주민, 전세계의 식민지 주민과 그 후손들) 간에 중요한 갈등이 노출된 식민지 시대 또는 식민지 이후 시대의 맥락에 근거한다(Chirkure 외 공저, 2010년 / Harrison과 Hughes, 2010년 / Alivizatou, 2012년). 또한 서구 사회의 사회 권력 관계는 계급, 종교, 인종 및/또는 성별 등과 관련되어 박물관 전문가와 원천 공동체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Smith, 2006년 / West, 2010년 / Tibbles, 2012). 박물관 전문가는 보다 많은 사회 권력을 갖고 있는 반면, 원천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이고 억압 받거나 소외된 계층이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지역 문화 및 요구에 대한 이해, 미학, 무형유산의 상징적 기능적 가치가 양측 간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 더욱이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국내외 정책의 해석이 다른 경우 한층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서구 문헌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박물관 전문인력과 원천 공동체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중국의 무형유산에 관여하는 박물관들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발달한 해안 지역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소수민족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생태박물관들에 기초한다(Stanley와 Chung, 1995년 / Su, 2008년 / Davis, 2011년 참조). 그러나 중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관점에서 박물관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유산 관행도 매우 다르다. 대다수 한족 도시들의 경우, 전통 박물관과 무형유산 행위자들은 보통 독립적으로 혹은 지방 정부와 협력하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Yu, 2013년 / Pan, 2014년), 양측이 공통의 대의에 참여해 서로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중국 동부의 해안 도시에 위치한 항저우의 예술공예박물관클러스터(이하 ACMC)에 대해 다룬다. 무형유산에 관여하는 중국 박물관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참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원천 공동체에 해당하는 장인 공동체 및 박물관 전문인력이 어떻게 공예술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 개념

ICHC는 무형유산의 성격과 가치에 관한 광범위한 논쟁을 야기했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무형유산은 변화하는가/정적인가, 객체 중심적인가/과정 중심적인가, 결정된 형태인가/조정 가능한 형태인가, 지역에 국한되는가/국제적인가, 과거 지향적인가/현재 지향적인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Bouchenaki, 2004년 / Kirshenblatt-Gimblett, 2004년 / Matsuura, 2004년 / Smith, 2006년 / Smith와 Akagawa, 2009년 / Hafsein, 2009년 / Munjeri, 2009년 / Alivizatou, 2012년 / Fu, Kim 및 Zhou, 2014년). 이러한 논쟁들은 무형유산이란 무엇이고, 누가 소유하며,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형유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Smith, 2006년, p.29)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무형유산이 구전 전통, 공연, 의식, 공예술 및 지식 체계를 통해 역동적으로 행해지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유산(Kurin, 2007년 / Munjeri, 2009년)이라고 제안한다. 무형유산은 단순히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 지혜 및 생활방식을 반영해 끊임없이 행하고 전승해야 하는 '살아있는 과정'(Seitel, 2001년, p.13)이다. 따라서 사물과 유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연유산 또는 유형유산과는 달리 무형유산의 중심은 공동체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된다(Blake, 2009년).

그러나 '공동체란 무엇이고, 누가 공동체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 및 정치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동체의 해석과 이해에 기여해 왔지만,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함의는 여전히 규정하기 어렵고 막연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경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그 대신 여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여 요인들이 존재한다(Hall, 1993년 / Bauman, 2001년). 그러나 무형유산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Blake, 2009년). 머피(1985년)의 경우, 공동체는 장소와 동의어이며, 비교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띤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산 지역 주변에 거주하며 공동된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들은 해당 지역 및 전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지역으로 정의된 모든 공동체가 유산 활용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Cole, 2005년). 그러나 특정 지역 내의 모든 공동체가 유산을 사용할 동등한 권리를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유산에 대한 접근성은 공동체들의 불균형적인 권력 구조, 전통적인 관리인과 법적 관리인 간의 갈등, 정부의 개입 및 기타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lake, 2009년 / Chirikure 외 공저, 2010년). Cole (2005년), Watson (2007년) 및 Fu, Long, Thomas (2014년)와 같은 학자들은 이질적이고 유동적인 공동체의 성격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급, 인종, 성별, 성 및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 유산 및 관련 환경을 항상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유네스코 ICHC에 표명된 공동체와 장소 간의 연관성은 공동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무형유산을 창조하고 전승한다는 점에 있다(2003년, p.2). 공동체, 이 경우 '원천 공동체'에는 두 가지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Peers 와 Brown, 2007 년, p.519). 첫째, 원천 공동체는 자신의 고장과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무형유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반영한다. 둘째, 원천 공동체의 본래 환경은 가령 농촌 환경의 쇠락 및 산업화/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변화하므로, 공동체(와 그 후손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어쩌면 사라질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전승할 방법을 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조정에는 원천 공동체가 본래의 환경을 떠나 무형유산을 박물관이나 문화기관에 전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의 북미 원주민 민속예술가들은 전통 공예기술을 익힌 고향을 떠나 스미스소니언 민속축제에 공예품을 전시한다(Kurin, 2004 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소수민족들은 조상들의 전통춤을 계승한 산악 지역에서 벗어나 심천문화마을에서 전통춤을 공연한다(Stanley 와 Chung, 1995 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경우 원천 공동체는 유산의 전승을 지원하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과 협력해야 하므로 더 이상 무형유산을 제어하는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몇 학자들은 여러 공동체들이 유산의 구축 또는 수행이라는 '문화 과정'에 관여한다고 주장한다(Watson, 2007 년 / Jackson 과 Kidd, 2011 년 / Smith, 2011 년). 특히 박물관 전문가와 유산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 공동체는 종종 유산의 활용, 즉 무형유산의 해석, 제시, 보존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HD 는 박물관과 유산 전문가가 유산 활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Smith, 2006 년). 때에 따라서는 원천 공동체와 전문가 공동체가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원천 공동체의 구성원이 전문인력 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벤베누토첼리니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금세 공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속 세공과 금 도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했으며, 이에 대한 글도 집필한 사람으로 오늘날의 견지에서 볼 때 유산 전문가이기도 했다(Sennett, 2008 년). 그러나 원천

공동체가 전문가 공동체와 독립적인 경우도 종종 있으며, 원천 공동체는 주로 유산 활용에서 전문가 공동체와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유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Smith, 2011 년).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이 이러한 문화 과정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의 반응은 무형유산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태도는 물론이고 무형유산의 진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anley, 2011 년 / Alivizatou, 2012 년).

원천 공동체, 전문가 공동체 및 관광객이나 방문객 외에도 매개자, 사업가 등을 비롯한 다른 공동체들이 유산 활용에 관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유산 구축 과정이 지닌 복잡성으로 인해, 특히 (무형) 유산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를 이해하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현장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동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커스(Bruner, 1994 년, p.424 에서 인용)는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연구를 통해 연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성하는 이론과 민족지학과 같은 한층 더 전통적인 방법이다.

## 무형유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참여 방식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핵심 관심사가 되었으며, 공동체 참여 방식의 출현으로 전세계 유산 활용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Chirikure, Manyanga, Ngoro 및 Pwiti, 2010 년). 유산 관리는 지역의 요구와 열망을 배제하고 독창성, 전통 및 진정성과 같은 서구 또는 유럽 상류층의 가치를 반영한 AHD 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Brown, 2005 년 / Churchill, 2006 년 / West, 2010 년).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무형)유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활동에 지역 공동체의 관여와 참여를 고무하는 한층 효과적인 유산 관리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Blake, 2009 년). 전술한 지역 공동체는 무형유산을 만들고 전승하는 '원천 공동체'를 일컫는다.

피상적인 정보 확산에서 프로젝트 기획 및 의사 결정과 같은 보다 심도 깊은 관여에 이르기까지 유산 활용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에 위계구조가 존재한다(Albro, 2007 년 / Blake, 2009 년). 공동체의 참여 방식은 권한 부여를 통해 공동체가 적극적이고 심도 깊게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Damm, 2005 년 / Blake, 2009 년 / Chirikure, Manyanga, Ndor, Pwiti, 2010 년). 지역 차원에서 외부 동인을 통해 가난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Midgley, 1986 년, p.13). 달리 말해, 공동체는 무형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정의할(Blake, 2009 년, p.50) 권한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관 주도 방식과 달리, 공동체 참여 방식은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 NGO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는 가운데 원천 공동체가 유산 관행에서 수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 참여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산 관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관계 당사자보다 원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원천 공동체, 전문가 공동체 및 관람객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가 유산 활용에 관여한다. 공동체 참여 방식에서는 정부나 비 정부기구와 같은 다른 공동체나 조직의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원천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동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한다(Blake, 2009 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과정에서 원천

공동체와 전문가 공동체가 갈등과 긴장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은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전략과 목적, 유산에 대한 소유권(관리 과정), 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이해, 관람객과의 관계, 유산의 가치 및 그 밖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Burden, 2007 년 / Blake, 2009 년 / Churchill, 2006 년 / Harrison, 2010 년 / Alivizatou, 2012).

원천 공동체는 대개의 경우 소외되거나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과거 식민지 지역의 공동체, 원주민, 디아스포라와 이민자 집단, 노동자 계급 및 LGBT(성소수자) 공동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유산은 많은 경우 서구 백인 사회의 중 상류 계층에 속한 박물관 또는 유산 전문가의 담론에 기초하여 보존되고 해석된다(Peers 와 Brown, 2003 년 / West, 2010 년 / Tibbles, 2012 년). 원천 공동체와 전문가 공동체는 종종 계급, 장소에 대한 귀속감, 신앙, 국적 등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유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박물관들은 20 세기 후반부터 관여해 왔으며(Fu, Kim 및 Zhou, 2014 년), 이러한 활동은 원천 공동체와 박물관 전문인력(예: 큐레이터, 박물관 에듀케이터 및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유산 전문가)이 협력하는 박물관 공동 작업에 반영되어 있다. 원천 공동체가 자신의 구전 전통, 토착 신앙, 전통 의식 및 보통 전통적인 박물관 컬렉션으로 수용되지 않는 다른 요소를 박물관에 가져가면, 박물관 전문인력이 이러한 무형유산의 보존, 제시, 교육 서비스 및 박물관 환경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원천 공동체에게 제공한다(Kurin, 2004 년과 2007 년). 박물관은 전문가의 교육적인 목소리가 지배하던 공간에서 민초와 소외된 공동체가 동질성, 객관성 및 엘리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도전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으로 변모했다(Hooper-Greenhill, 2000 년). 성공적인 사례로는 마오리 공동체가 자신들의 무형유산을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뉴질랜드 테 파파통가레와 국립박물관(Alivizatos, 2012 년) 및 아프리카어를 구사하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를 홍보하기 위해 박물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어 박물관을 들 수 있다(Burden, 2007 년).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박물관 전문인력이 원천 공동체와 협상하는 '접촉 영역'(Clifford, 1997 년, p.188) 또는 '대화형 극장'(Phillips, 2005 년, p.88)이라고 묘사된다. 때때로 양측 간에 갈등과 긴장에 조성되기도 하지만, 클리포드와 필립스는 이러한 현상이 박물관의 무형유산 구축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생태박물관은 무형유산을 활용할 때 이러한 유형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 생태박물관의 원천 공동체는 (공예술, 의식 및 생활방식과 같은) 무형유산을 실연하기 위해 지역 생태환경에 의존한다. 생태박물관에서 공동체 참여 방식이 지닌 가치는 유산 연구, 인류학 및 관광 분야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공동체 참여에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전략 및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민주적인 무형유산 보존 방식은 아시아에서보다는 유럽에서 한층 자주 적용되는 반면(Davis, 2011 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 일본,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무형유산 보존의 하향식 접근법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 및 관광 개발이 무형유산 보존의 주요 목적이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Stanley 와 Chung, 1995 년 / Hitchcock, Stanley 및 Siu, 2004 년 / Davis, 2011 년).

중국에서 생태박물관은 1990 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Su, 2008 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대다수 생태박물관들은 소수민족의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생태박물관은 지역 경제 및 소수민족집단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을 개선시켰다. 일례로 일부 소수민족 마을들의

교통과 식수 공급 시설이 개선되었고, 생태박물관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구성원들의 수입도 증가했다(Stanley와 Chung, 1995 년 / Davis, 2011 년 / Wang, 2012 년). 그러나 중국의 생태박물관은 주로 정부 정책,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외에도 무형유산에 대한 저급한 접근법, 살아있는 문화를 정적인 전시로 변질시키는 문제, 진정성 상실, 사회구조와 소수민족 공동체의 가치 변화 등과 같이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들도 야기했다(Yang 과 Wall, 2009 년 / Davis, 2011 년). 중국의 생태박물관에 대해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은 이들 박물관의 활용이 학자들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고 원천 공동체의 목소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사물 지향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박물관 및 새로이 건립된 무형유산 테마박물관을 비롯해 다른 유형의 박물관들이 무형유산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계로부터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물관 전문인력이 원천 공동체와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체 참여 방식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공동체 참여 방식에 관한 기존 문헌들(대부분이 서구 문헌임)이 중국에서는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협력 방식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한층 풍부하게 개선하고자 한다.

## 항저우와 ACMC 의 무형유산 및 박물관

2011 년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이하 ICHLC)이 발효된 이래, 항저우에서도 점차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과 조치들이 채택되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태스크포스, 무형문화유산과 및 항저우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전문화된 위계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 기관들은 항저우 무형유산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ICHLC 에 의거한 지정과 평가, 무형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책임진다(Yu 와 Pan, 2014 년 / Wen, 2011 년).

항저우의 박물관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무형유산에 관여한다. 첫째, 기존의 사물 지향적 박물관들이 상시적인 작품 전시 외에 무형유산을 전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차 박물관은 차 생산자들이 전통적인 차 생산 기술을 전시하도록 초청하고, 국립 실크 박물관은 실크 훔치기 염색 및 채색 공예를 보여준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무형유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박물관과 전시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항저우에는 무형유산을 전시하는 53 개의 박물관과 전시센터가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4 억 1,500 백만 위안(약 7 천만 달러)이 투자된 33,200 m<sup>2</sup> 규모의 무형유산 전시센터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Pan, 2014 년).

무형유산 연행자들은 상당 부분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항저우 무형유산의 활용 사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 년 이래 '장인에게 배우는 견습생' 프로젝트(Pan, 2014 년)와 같이 무형유산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전개되기 시작되었다. 몇몇 무형유산 연행자들은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박물관을 개관했다. 일례로 종이우산 생산자인 리우용쿠안(Liu Yongquan) 씨는 종이우산 박물관을 설립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제작 과정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이른바 무형유산의 '생산적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데(Xu, 2012 년, p.6), 다양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장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 151 개 및 민간 공방 56 개소가 항저우의 8 개 구 중 하나인 위항

구에서 무형유산 관련 활동 또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Yu, 2013 년). 그러나 이 '생산적 보호' 방법이 무형유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나아가 그 효과가 어떠한 지는 미지수다.

본 연구의 주제인 ACMC 는 2009 년 설립되었으며, 박물관이 항저우의 무형유산에 관여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ACMC 는 항저우 대운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CMC 가 개발된 공간의 대부분은 19 세기 후반 운하 옆에 건설된 공예 작업장 및 공장을 수용하던 장소로 사용되었다(예: 1889 년 통이 면공장). 따라서 ACMC 는 설립될 당시에 항저우 수공예 유산을 보호하고, 재사용하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통 기술을 재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ACMC 는 다섯 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세 곳은 신기술과 전시회를 결합한 사물 전시에 주안점을 두며(삽화 1 참조), 나머지 두 곳은 무형유산으로 살아 있는 공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사물 지향적 박물관 세 곳은 칼·가위·검 박물관, 우산 박물관 및 부채 박물관으로 중국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수공으로 제작된 칼, 가위, 검, 우산 및 부채를 전시한다. 다른 두 곳은 공예술 시연관(이하 WDP)과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장인 공방(이하 MW)이며, 무형유산으로 살아 있는 공예술의 보존과 제시에 초점을 맞춘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화 인터뷰, 직접 관찰 및 문서화라는 연구 방법들을 조합해 적용했다. 주요 연구 데이터는 공식 반구조화 인터뷰 13 건과 비공식 대화 38 건에서 확보했다. 표 1 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프로필을 나타낸다. 인터뷰는 박물관

기획자, 큐레이터 및 박물관 직원을 비롯한 박물관 전문인력과 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1) ACMC 의 공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 및 (2)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이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개방형 토론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삽화 1.

ACMC 부채박물관 모습.

사진: Ruohan Mao, 2015 년 4 월.

또한 저자들은 2013 년 9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 박물관에서 직접 관찰을 실시했다. 직접 관찰은 장인들과 박물관 인력이 ACMC 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 및 이처럼 지속적인 협력이 공예술 제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다양한 문서를 수집해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관리 문서, 박물관 안내 책자와 기획 제안서, 평가 보고서, 정부 보고서, 사진 및 뉴스 기사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서는 장인들과 박물관 전문인력이 참여해 서로 협력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비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수집된 원 데이터를 문자화한 후 문자 코딩과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쳤다.

## 연구 결과

### 살아있는 프레젠테이션과 장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

ACMC 의 정책은 이 박물관의 기획자 중 한 사람인 MrQiang 이 설명한 것처럼 사물에 기반한 기존 박물관들의 정책과 매우 다르다.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제작 과정, 원재료 처리 등 예술공예와 관련된 수공예 기법의 개발 (...), 여러 시대에 속한 예술공예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공예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지혜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 오늘날 관람객들은 전시된 사물보다는 (...) 살아 있는 대상을 좋아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목적은*

사물보다는 생생한 재현을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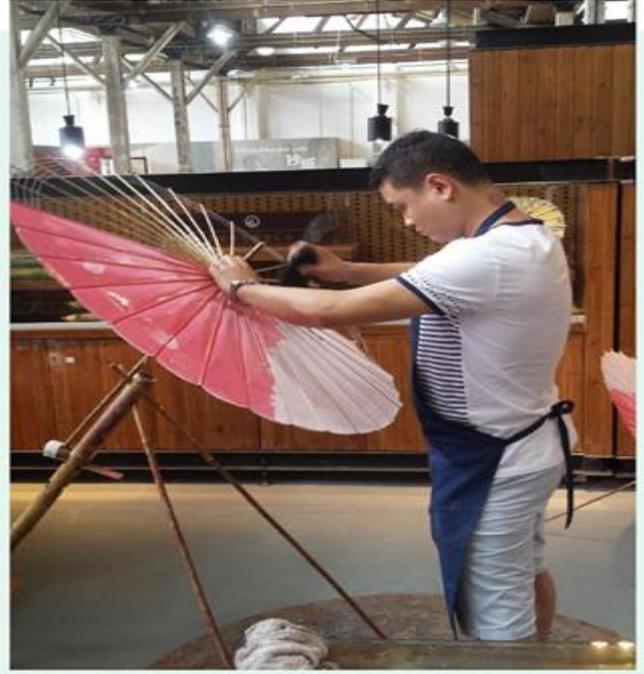
생생한 재현은 박물관 관람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ACMC 가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ACMC 의 기획자와

큐레이터가 무형유산으로서 본인의 공예술을 ACMC 의 WDP 와 MW 에서 직접 시연하는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장인들을 초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삽화 2 참조).

**표 1.**

**반구조화 인터뷰 상세**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의 역할	가명	일자
1-2	ACMC 기획 리더	MrQiang	2013년 10월 24일, 11월 16일
3	ACMC 전시부 부서장	Miss Xu	2013년 12월 17일
4	ACMC 교육부 부서장	Mrs Wang	2014년 4월 25일
5	ACMC 전시부 부서원	Mrs Chen	2014년 1월 22일
6-7	서호 비단유산 장인	MrTu 와 Mr Zhang	2012년 4월 25일, 2014년 4월 23일
8	왕싱지부채 장인	Mrs Zhang	2014년 4월 23일
9	푸양 죽지 장인	Mr Zheng	2014년 4월 23일
10-11	장샤오첸가위 장인	Mr Deng 과 Mr Qian	2014년 4월 25일
12	회양목 조각 장인	Miss Chen	2014년 4월 30일
13	유색 세공 장인	Miss Dong	2014년 4월 30일



**삼화 2.**

물을 나르는 대나무 바구니를 제작하는 장인.  
 사진: Ruohan Mao, 2015 년 4 월.

**삼화 3.**

ACMC 공예술시연관에서 가위를 만드는 두 명의 장인.  
 사진: Ruohan Mao, 2015 년 4 월.

**삼화 4.**

ACMC 공예술시연관에서 우산을 만드는 장인.  
 사진: Ruohan Mao, June 2015.

이러한 전략은 다소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새로운 이론, 즉 사물 수집에 초점을 맞추던 관행에서 박물관과 관람객, 나아가 보다 넓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대하도록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하는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Davis, 2011 년 / Alivizatou, 2012 년). ACMC 의 전시부에서 근무하는 Mrs Chen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 새로운 박물관학 시대에 (...) 관람객은 박물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관람객들에게 한층 매력적으로 보이는 ACMC 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ACMC 의 활용 사례는 박물관이 단순히 보존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고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이유로 무형유산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이한 목표를 지닌 공동체가 일반적인 무형유산의 활용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여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ACMC 에서 소위 말하는 원천 공동체는 장인들이며, 자율적으로 일하는 독립적인 장인과 예술공예회사에서 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고용된 장인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직업

안정성을 누린다. ACMC에 대한 참여는 대개 이 박물관과 예술공예회사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ACMC의 전시부 부서장은 장인과 ACMC의 협력 패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CMC는 장인들이 작업하고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견습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영업팀을 통해 이들을 지원합니다. 한편 장인들은 예술공예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시연해 보이고, 직접 배우길 원하는 관람객이 있는 경우, 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장인들은 ACMC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자영업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비단우산을 만드는 MrTu는 이렇게 설명한다.

*수제 우산을 만드는 데는 쉽사리 100 위안(\$16 달러) 이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는 많이 팔지 못해요. (...) 작업장을 임대해야 하는데다 전기료, 임대료, 견습생 훈련비 및 기타 비용까지 계산하면 (...) 게다가 견습생이라도 고용할라치면, 무슨 수로 이 견습생의 월급을 충당하겠습니까? 항저우의 최저 임금은 월 1,310 위안(\$209 달러)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 그래서 비단우산을 만들 공간을 제공해 준 박물관(ACMC)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ACMC의 운영은 중국 및 다른 많은 국가들의 대다수 공공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연간 지원에 주로 의존한다(Kurin, 2007년 / Alivizatos, 2012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작업 공간은 이곳에서 일하는 장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장샤오첸 가위 제작자인 Mr Deng과 Mr Qian에 따르면, 중국무형문화계승자 지위를 얻은 장인들은 ACMC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물질적 및 재정적 혜택뿐만 아니라 ACMC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인 중 한 사람인 Mrs Zhang은 ACMC를 방문한 후 엄마의 직업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제 딸은 5학년입니다. 전에는 제가 손으로 직접 부채를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이곳을 방문한 딸아이와 반 친구들은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더군요. 딸아이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박물관에서 일하는 장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제 일을 잘 몰라요. (...) 하지만 박물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되더군요.*

고대 중국에서 장인은 대개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하층민으로 간주되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물관은 종종 대중의 높은 인지도를 향유하는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Kurin, 2004년과 2007년), 박물관에서 일하는 장인과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그의 수공예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재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박물관과 협력하는 것은 장인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및 기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아가 장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인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장인들은 ACMC 공예술 관행에 참여함으로써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오늘날 항저우의 장인, 사실상 중국 전역의 장인들이 광범위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조적으로 ACMC의 전문인력과 큐레이터는 공예술의 보존이 박물관의 주요 기능이라 분명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MC는 장인들이 자신의 공예술을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APMC 와 같은 박물관의 도움 없이 공예술의 연속성을 보존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관행이 장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인데, 이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APMC의 주요 목적이 장인의 지원보다는 관람객 유치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행이 원천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원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동체 참여 방식의 사례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원천 공동체 및 무형유산의 한층 지속 가능한 개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Blake, 2009 년 / Munjeri, 2009 년 / Davis, 2011 년).

### 박물관의 홍보 전략, 관람객들의 방해 및 장인의 작업 과정

APMC는 가장 현대적인 다른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관람객 중심의 홍보 및 운영 전략을 추구한다(Com, 2011 년). APMC 전시부의 Mrs Chen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저희 박물관이 컬렉션으로 빼곡한 캐비닛과 같은 장소, 관람객들이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가령 쌍방향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람객이 보기에 한층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공예술 전시는 저희 박물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APMC 의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홍보 및 운영에 포함시켰다. 첫 번째 전략은 '무대 공연이 아니라 최대한 개인 작업장과 유사한 실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요구했다(MacCannell, 1973 년). APMC 의 교육부 부서장인 Mrs Wang은 이러한 전략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저는 공연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 꾸민 활동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인들이*

*공연을 한다면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람객들에게도 썩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장인들이 실제 작업장에서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처럼, 동일한 실제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적용한 두 번째 전략은 장인과 관람객들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Miss Xu는 이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장인들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 배우길 원하는 경우엔 어떻게 공예품을 만드는지 가르쳐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런 종류의 대화형 과정을 선호합니다.*

Miss Xu 은 이 같은 관람객 중심의 홍보 및 운영 전략이 무형유산의 대중 홍보를 포함하는 ICHC 보호 조치(UNESCO, 2003 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전략은 주로 박물관 관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장인들은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온전한 과정이기를 바란다. 따라서 장인이 작업하는 동안 배우고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 관람객들의 요구는 부채 장인인 Mrs Zhang 이 설명한 것처럼 작업의 질과 작업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하려고 이곳에 왔고, APMC가 원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방해 받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배우고 싶다는 관람객이 있으면 가르쳐 주곤했는데, 이젠 더 이상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관람객이 끼어들어 맥이 끊기면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 생각의 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 게다가 제 수입은 얼마나 많은 부채를 만드느냐와 직결되는데, 관람객들은 항상 제 일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인터뷰는 APMC 가 추진하고 있는 관람객 중심의 홍보 전략이 장인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질과 작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장인들과 APMC 사이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PMC 전문가들의 주된 동기는 공예술의 보존이 아니라 관람객 유치에 있기 때문에, APMC 는 장인들의 우려보다는 관람객을 우선시한다. 이처럼 무형유산에 관여해 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어 왔다. 양측 간에 이루어진 오랜 협상 끝에 이제 관람객들은 약간의 교육비를 내고 있고, 특정 시간에 예술공예를 배울 수 있는 관람객들의 수도 제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인들의 수입도 증가했다.

APMC 의 큐레이터와 전문 인력은 박물관에서 소개하는 공예술이 진정한 장인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큐레이터의 개입, 관람객의 참여 및 장인들의 타협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정성은 있을 수 없다. 박물관 공간에서 유산의 진정성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협상된다. 잭과 키드(2011 년)가 편집한 『공연 유산』에서 제안된 것처럼, 박물관은 큐레이터, 유산 전문가 및 관람객을 비롯한 행위자들이 유산을 공연하는 극장과도 같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모든 행위자가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인들의 경우 박물관 관람객들이 공예술 공연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장인들이 이러한 측면을 이해했다면, APMC 의 관람객 중심적 홍보 정책을 한층 지지했을 것이다. 위기에 놓인 유산은 종종 관람객들의 지원과 예술공예품 구입(Cohen, 1988 년)과 같은 상업화를 필요로 한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원천 공동체가 박물관의 유산 활용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측은 보다 원활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공예술의 성격과 관람객 중심의 박물관 관리

공예술은 원료 준비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무형유산의 살아 있는 성격을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존의 박물관 공간에서 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는 APMC 의 장인과 박물관 전문인력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였다. 다음은 APMC 에서 일하는 비단유산 장인인 Mr. Zhang 가 한 말이다.

*공예술은 그저 한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료를 구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재료를 구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해요 (...) 일례로 많은 곳에서 대나무가 생산되지만 우산 만드는 데 적합한 대나무가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곳에서 충분한 재료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장소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실내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죠 (...) 그런데 박물관측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시간에 마치 사무직처럼 박물관에 남아 일하길 바랍니다. (...) 정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을 도통 이해하질 못한다니까요. (...)*

회양목 조각 및 유색 세공 작업을 하는 장인들을 비롯해 다른 인터뷰 응답자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장인들이 보기에 APMC 의 전문가들은 공예술의 성격과 그 복잡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양측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박물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박물관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람객에게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개관합니다. 관람객들은 공예술 작업을 보기 위해 개관 시간에 박물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작업 공간에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관람객들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박물관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장인이라면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상 원천 공동체가 무형유산 보호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이 관람객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Blake, 2009 년). 비슷한 현상이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중국의 상태박물관 및 문화마을에서 원천 공동체가 많은 경우 무형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taley와 Chung, 1995 년 / Davis, 2011 년).

또한 ACMC의 관리 방식은 정적인 사물을 다루는 박물관의 기존 방식과 유사하다. 사물 수집이라는 고정된 성격으로 인해 박물관 전문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엄격한 일방향 관리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예술의 살아 있는 성격은 공예술의 프레젠테이션과 보존이 박물관 공간에 국한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박물관 전문인력은 살아 있는 '사람', 즉 무형유산의 원천 공동체를 다루는 양방향의 한층 상호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증거는 박물관이 무형유산을 보존할 때 전시 창 뒤에 전시 대상을 고정시키는 물질 대상의 보존 방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키르센블랏-김블레트(2004 년)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ACMC 박물관의 전문가들은 공예술의 생생한 상태를 무형유산으로 박물관에 제시하려 시도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온전히 개발하지는 못했다.



삽화 5.

칼·가위·검 박물관 모습.

사진: Ruohan Mao, 2015 년 4 월.

삽화 6.

ACMC 항저우 예술공예박물관 장인 공방의 전시.

사진: Ruohan Mao, 2015 년 4 월.

장인들과 박물관 전문인력은 최근에 이러한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각 장인 그룹(예: 유색 세공 그룹, 우산 공예 그룹 등)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ACMC의 작업장에 머물며 작업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준비하도록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장인들은 전통 공예술의 보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인 재료의 전통적인 사용 방식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UNESCO, 2003년). 이 해결책은 양측에서 진행한 지속적인 협상과 타협의 결과이다. 원천 공동체로서 장인들은 무형유산의 활용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측면은 공동체 참여 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Damm, 2005년 / Blake, 2009년).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무형유산에 관여하는 박물관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와 다르며, 무형유산이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다수의 공동체에 의해 체계화되고 실현된다는 것(Jackson 과 Kidd, 2011년 / Smith, 2011년)을 보여준다.



삽화 7.

우산 박물관의 진열장.

사진: Ruohan Mao, 2015년 4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ACMC의 장인 공동체와 박물관 전문가 공동체는 서로 다른 동기와 이해로 협력하게 되었다. ACMC의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했고, 장인들이 박물관에서 살아 있는 공예술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도록 초청함으로써 정적 사물을 전시하는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적용했다(Kirshenblatt-Gimblett, 1998년과 2004년). ACMC의 기획은 이 박물관의 발전이 관람객과 박물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제 2차 박물관 시대'(Philips, 2003년, p.83)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ACMC 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정부 자금을 지원 받고 보다 높은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Kurin, 2004년과 2007년)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소득과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공동 목표가 유산의 활용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종래의 연구들과 다르다(Blake, 2009년 / Alivizatou, 2012년). 본 연구에서 중국 장인 공동체는 낮은 소득,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위험에 처한 공예술로 인해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천 공동체와 전문가 공동체(박물관 및 유산 전문가) 간의 협력이 무형유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 공동체의 서로 다른 동기는 갈등과 긴장을 유발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첫째, 관람객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장인들의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인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관람객을 유도함에 따라 장인들의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작업의 질과 작업량도 영향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인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은 관람객을 응대하는 장인들의 애로를 보상하기 위해 약간의 요금을 관람객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었다. 둘째, 관람객 중심의 정책은 장인들이 전시장에 상주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공예술의 성격과 충돌했다. 공예술이 '살아있는 과정'(Seitel, 2001년, p.13)이라는 사실을 무시했고,

장인들이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도 막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각 장인 그룹에서 항상 적어도 한 명의 구성원이 박물관에 남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갈등의 해결 과정은 유산 활용에 대한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양측의 복잡하고 지난한 협상과 타협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Arantes, 2013 년). 또한 원천 공동체로서 장인들이 갈등 해결 과정에 미친 영향은 무형유산의 활용에 대한 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피상적이지 않았고 공동체의 권한을 발휘하는 형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Damm, 2005 년 / Chirikure, Manyanga, Ndobro 및 Pwiti, 2010 년).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공동체 참여 방식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주체가 박물관의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의 이해에 따라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반해, 장인들은 정책 수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사한 문제가 중국 내 다른 박물관과 도시의 무형유산 활용 사례에서도 관찰되었다(Stanley 와 Chung, 1995 년 / Davis, 2011 년). 이것은 서구 사회만큼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의 정치문화적 현실, 달리 말해 일반적으로 정부 행정(및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유산 산업을 관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원천 공동체가 단기간 내에 무형유산의 활용에서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면, 서구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내 원천 공동체들의 참여 정도를 비판하기 보다는 공동체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유산이 '사물'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관여하는 실연이자 문화의 과정이라는 잭슨과 키드(2011 년) 및 스미스(2006 년)의 견해를 반영한다. 장인 공동체와 박물관의 전문인력 공동체가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이지만, 무형유산의 구축, 생산 및 제시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공동체 및 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예술공예회사도 APMC 박물관에서 일하는 장인들을 고용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APMC 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PMC 를 방문하는 관람객들도 장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공예품의 구매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경우, 무형유산의 활용에 관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또는 '문화적 매개자'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층 풍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Arantes, 2013 년, p.39). 이것은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체 참여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것이며, '사람 중심 박물관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Alivizatou, 2012 년, p.16) 

## 감사의 말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의 기본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중국 항저우의 예술공예박물관 클러스터의 Xiaoxiao Xu, Lian Wang, Xining Xu 및 다른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들의 진실된 도움이 없었다면 본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 참고문헌

- Alivizatou, M., 2012. *Intangible Heritage and the Museum: New Perspectives on Cultural Preservation*. WalnutCreek: Left Coast Press.
- Alkire, S., 2004. 'Culture,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in *Culture and Public Action*, Rao, V. and Walton, M.(eds.).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85-209.
- Albro, R., 2007. 'The Terms of Participation in Recent UNESCO Cultural Policy Making'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llenges and Approaches*, Blake, J.(ed.). Buih Wells: Institute of Art and Law, pp. 109-128.
- Arantes, A., 2013. 'Beyond Tradition: Cultural Mediation in the Safeguarding of ICH'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izpe, L. and Amescua, C.(eds.). Cham: Springer, pp. 39-55.
- Bauman, Z., 2001. *Community: Seeking Safety in an Insecure World*. Cambridge: Polity.
- Blake, J., 2009. 'UNESCO's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lication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 *Intangible Heritage*, Smith, L. and Akagawa, N.(eds.). London: Routledge, pp. 45-73.
- Bouchenaki, M., 2004. 'Editorial' in *Museum International*, 56, pp. 6-10.
- Brown, M. F., 2005.'Heritage Trouble: Recent Work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2 (1), pp. 40-61.
- Burden, M., 2007. 'Museums and the Intangible Heritage: The Case Study of the Afrikaans Language Museum'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 pp. 82-91.
- Chirikure, S., Manyanga, M., Ndoro, W., and Pwiti, G., 2010. 'Unfulfilled Promises? Heritage Manage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t some of Africa's Cultural Heritage Site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 (1-2), pp. 30-44.
- Churchill, N., 2006. 'Dignifying Carnival: The Politics of Heritage Recognition in Puebla, Mexico'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3 (1), pp. 1-24.

- Clifford, J.,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E., 1988. 'Authenticity and Commercialization in Tourism' i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pp. 371-386.
- Cole, S., 2005. 'Cultural Tourism,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Cultural Tourism in a Changing World: Politics, Participation and (Re) presentation*, Smith, M. and Robinson, M.(eds.). Clevedon: Channel View Publications, pp. 89-103.
- Conn, S., 2011. *Do Museums Still Need Objects?*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Davis, P., 2011. *Ecomuseums: A Sense of Place*.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Fu, Y., Kim, S., and Zhou, T., 2014. 'Staging the 'Authenticity' of Intangible Heritage from the Production Perspective: The Case of Craftsmanship Museum Cluster in Hangzhou, China' in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3 (4), pp. 285-300.
- Fu, Y., Long, P. and Thomas, R., 2014. 'Guanxi and the Organization of Chinese New Year Festivals in England' in *Event Management*, 18 (3), pp. 247-263.
- Hafsein, V., 2009. 'Intangible Heritage as a List: From Masterpieces to Representation' in *Intangible Heritage*, Smith, L. and Akagawa, N. (eds.). London: Routledge, pp. 93-111.
- Harrison, R. (ed.), 2010.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Heritage*, Mil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 Harrison, R. and Hughes, L., 2010. 'Heritage,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in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Heritage*, R. Harrison, R. (ed.). Mil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pp. 234-269.
- Hall, S., 1993. 'Culture, Community, Nation' in *Cultural Studies*, 7 (3), pp. 349-363.
- Hitchcock, M., Stanley, N., and Siu, K. C., 2004. 'The South-east Asian Living Museum and Its Antecedents' in *Heritage, Museums and Galleries: An Introductory Reader*, Corsane, G. (ed.). London: Routledge, pp. 320-339.
- Hooper -Greenhill, E., 2000.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London: Routledge.
- Jackson, A. and Kidd, J., 2011. *Performing Heritage: Research, Practice and Innovation in Museum Theatre and Live Interpret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irshenblatt-Gimblett, B., 1998. *Destination Culture: Tourism, Museums, and Herit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rshenblatt-Gimblett, B., 2004. 'Intangible Heritage as Metacultural Production' in *Museum international*, 56 (1-2), pp.52-65.
- Kurin, R., 2004. '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 Culture Dead or Alive?' in *ICOM News*, 57 (4), pp. 7-9.
- Kurin, R., 2007.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Factors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 pp. 9-20.
- Lowenthal, D., 1990.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3), pp. 589-603.

- Matsuura, K., 2004. 'Preface' in *Museum International*, 56 (1-2), pp. 4-5.
- Midgley, J., 1986. 'Community Participation: History,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e*. Midgley, J., Hall, A., Hardiman, M., and Narine, D. P. (eds.). London: Methuen, pp.13-44.
- Munjeri, D., 2009. 'Following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Roots: Some Dimensions of Intangible Heritage' in *Intangible Heritage*. In Smith, L. and Akagawa, N. (eds.). London: Routledge, pp. 131-150.
- Murphy, P. E., 1985. *Tourism: A Community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an, Q., 2014. 杭州非物质文化遗产产生性保护现状及其对策. [The protection situ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nd its corresponding solutions in Hangzhou].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www.zjfeiyi.cn/xueshu/detail/3-78.html>
- Peers, L. and Brown, A. K., 2007. 'Museums and Source Communities' in *Museums and Their Communities*, Watson, S.(ed.). London: Routledge, pp. 519-537.
- Phillips, R., 2005. 'Replacing Objects: Historical Practices for the Second Museum Age' in *The Canadian Historical Review*, 86 (1), pp. 83-110.
- Seitel, P., 2001. 'Proceedings of Smithsonian-UNESCO Conference Forthcoming' in *Smithsonian Talk Story*, 20, 13.
-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London: Penguin.
- Smith, L. and Akagawa, N. (eds.). 2009. *Intangible Heritage*. London: Routledge.
-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Smith, L., 2011. *All Heritage Is Intangible: Critical Heritage Studies and Museums*. Amsterdam: ReinwardtAcademie.
- Stanley, N. and Chung, S. K., 1995. 'Representing the Past as the Future: The Shenzhen Chinese Folk Culture Villages and the Marketing of Chinese Identity' in *Journal of Museum Ethnography*, 7, pp. 25-40.
- Stanley, N., 2011. 'Buyers, Connoisseurs and Others: Collecting Asmat Art'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12(4), pp. 348-362.
- Su, D., 2008. 'The Concept of the Ecomuseum and Its Practice in China' in *Museum International*, 60 (1-2), pp. 29-39.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vance online publication available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25/132540e.pdf>